

## NEWS

### 벤·처·관·련

#### 정통부, 국제 SW 프로세서 인증 획득 지원

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서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SPICE(Software Process Improvement Capability Determination) · IT서비스관리(ITSM) 등 국제 인증모델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획득 시 심사비의 50%(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해에는 총 11개 기업이 국제 SW프로세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올해는 15개 이상의 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공고는 인터넷([www.software.or.kr](http://www.softw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07년 정보통신 정책개발 지원사업 시행

정보통신부는 IT분야 정책연구와 학술행사를 지원하는 2007년도 정보통신 정책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 공고했다.

정보통신 정책개발 지원사업은 IT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대안 개발과 관련 학문 발전을 위해 정책연구와 학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IT 분야 정책연구에 22억 원, 국내 · 외 IT 학술행사 개최 등에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회, 대학, 단체 등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ita.re.kr>)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6월 13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해서는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의 심의 · 평가를 거쳐 6월 말에 최종 선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 중기청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II' 발표

중기청은 투자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데 필요한 투자자금 공급구조를 앞당기고, 자본시장통합법 출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캐피탈과 다른 투자펀드와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 중심의 투자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LLC)형 창투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다양한 투자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창투자 · 창투 조합의 투자의무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문펀드,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 전문투자펀드, 후계자 부재나 고령 등으로 매각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퇴출벤처 인수 전문펀드 등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창업초기 · 지방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LLC 설립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전담회사로 설립하기로 했다.

#### 벤처기업육성법 연장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서 10년 더 연장된다. 또, 정부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해 상법상의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 특례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 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확인 요건을 완화해 문화 콘텐츠 등 문화 상품 제작에 대한 벤처 투자 기관 등의 자본금 인수 비율을 10%에서 7%로 조정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기 전에도 투자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투자 수익의 배분 시기를 확대했다.

#### 산업은행, 벤처 M&A PEF 개시

산은이 올 초부터 추진해 온 300억 원 규모의 벤처기업 인수 · 합병(M&A) 전용 사모투자펀드(PEF)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산은이 150억 원을 투입하고 보험사, 증권사, 지방은행 등 4~5개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 이 펀드는 앞으로 벤처기업 M&A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전문 PEF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은은 벤처투자 및 구조조정 노하우, 기술가치평가, M&A경험, 광범위한 기업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정보사회진흥원, 중기 지식포털 'IT도우미' 오픈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보화 지식포털 사이트인 'IT도우미(www.ITdoui.or.kr)'를 개설한다.

IT도우미는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해 온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중소기업과 IT분야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식, 경험, 조언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웹2.0 개념을 적용,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SW 유관단체 수출 지원 '올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소프트웨어(SW) 산업 유관단체들이 올해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등 수출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SW산업 유관단체가 유기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미래컴아이앤씨,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아토정보기술 등 SW공제조합 소속 8개사를 중심으로 지난해 SW수출진흥운영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유관 기관도 참여하며, 해외시장개척단 등 SW 수출 촉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한-미, 반도체 기술 공동연구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를 계기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메모리와 비메모리 융합기술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감대 갖고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3대 취약분야인 설계, 신공정, 장비재료 분야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미국은 비메모리와 장비재료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반도체 공동기술개발에 2011년까지 정부가 100억 원, 민간이 64억 원 그리고 미국이 54억 원 등 총 218억 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차세대 공정사업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참여하며 반도체 설계분야는 코아로직과 엠텍비전 등이, 장비재료분야는 주성엔지니어링과 케이씨텍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세포·유전자치료제 CEO포럼 결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바이오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자를 위한 조찬포럼'을 결성했다. 바이오산업 개발현장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건의사항들을 보다 더 간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민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마련한 이 포럼은 올해 12월까지 격월로 진행될 예정이다.

CEO 조찬포럼 대상은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를 연구·개발·생산·계획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연구소장·학계인사 등이다. 식약청측 참여는 생물약품본부 생물약품안전팀, 세포조직공학제제팀, 유전자치료제팀, 국립독성연구원 생명공학지원팀이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홈페이지(www.kobioven.or.kr)에서 '커뮤니티 →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찬포럼'란에 등록하면 된다.

### 코스닥CEO 아카데미 출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경수)는 코스닥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코스닥 시장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코스닥 CEO가 중심이 된 '코스닥 CEO 아카데미'를 창립했다. 코스닥 CEO 아카데미는 강연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고급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관련 인사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회원 경영 노하우 및 성공사례 등을 공유케 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클린 코스닥 운동 등 코스닥 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M-Safer) 이벤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이기태)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휴대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협회가 2005년 5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시작한 서비스로 핸드폰 신규 개통 시 SMS로 개통사실을 통보해 주고, 홈페이지(www.msafar.or.kr) 가입 시 무료로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현황을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동전화 불법개통에 의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어 현재 7만 6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협회가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명의도용의 불법성 인식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M-Safer(www.msafar.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6월 13일까지다.

## NEWS

### 지·방·벤·처

#### 경기도내 벤처기업 뚜렷한 증가세

경기도내 벤처기업이 실질적인 신기술기업 활성화와 아파트형공장 증가에 따른 입지 호조건 등에 힘입어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 안에 '최대 벤처 광역단체'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3월말 현재 도내 벤처기업 수는 3천572개로 지난 해 말 3천539개, 2005년 2천745개, 2004년 2천127개, 2003년 1천970개 등 매년 20~30% 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업종별로 보면 신기술 기업이 2천518개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기업 483개, 기술평가 보증·대출 421개, 벤처투자기업 107개, 예비벤처기업 43개 순이다.

#### 경북도, 부품소재 3C밸리 조성계획 만들어

경상북도는 『글로벌 부품소재 3C-Valley 조성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세계시장의 FTA 체제 출범과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급부상에 따라 미래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한미 FTA를 지역산업구조 선진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경북도의 새로운 전략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별 특화분야를 세분화 한 뒤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7월경에 부품소재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분석 및 실시 계획 용역을 하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조성할 계획이다.

####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백신 무료서비스

광주시는 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를 통해 「온라인백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백신서비스란 인터넷접속을 통해 바이러스는 물론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취약점검사과 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날로 악성화 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다.

온라인 백신서비스는 시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PC온라인 바이러스검사" 박스에 있는 "OPEN"을 클릭하면 즉석에서 무료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광주시는 시민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바이러스 증상 및 치료방법, 바이러스나 PC보안상식 등 다양한 보안 콘텐츠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NEWS

###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AMPK 효소의 항암기능 세계 최초 규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세포성장 조절유전체연구단(정중경 교수팀)이 AMPK 효소가 항암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정중경 교수팀은 제넥셀과 충남대 의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협력해 당뇨와 비만 관련 유전자로 알려졌던 AMPK가 세포 구조의 유지와 염색체 개수의 보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AMPK(AMP-activated Kinase)는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활성이 증가해 대사 관련 효소들을 조절하는 물질로, 당뇨병이나 비만 등 여러 대사질환의 치료제 개발 표적 유전자로 큰 주목을 받아 왔다. 정 교수팀은 AMPK가 암세포의 비정상적 구조를 정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AMPK 조절을 통해 항암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중경 교수팀의 개발에 따라 AMPK가 암 치료의 표적으로 새로이 증명됨에 따라 이미 개발되거나 현재 개발 중인 AMPK 활성화 약물들을 항암제로서 재평가할 수 있게 됐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테크노마트 2007 참가기업 모집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오는 6월 20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IT테크노마트 2007(SEK/IT테크노마트/ITRC포럼 2007) 참가 기관을 모집한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과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과물 및 우수 IT 기술을 전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IT전시회인 SEK, 전국 우수 대학 IT연구센터가 참여하는 ITRC포럼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알찬 행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 성과물 및 보유 기술의 전시를 희망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수행기관과 민간 기업은 사이버기술시장([www.technomart.re.kr](http://www.technomart.re.kr))에 참가 신청서 접수하면 된다.(문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성과확산단 기술사업화지원팀 김은숙 연구원 042-710-1726, [eskim@ita.re.kr](mailto:eskim@ita.re.kr))

## NEWS

### 대·덕·R&D·특·구

####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 지원

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통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기업

지정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6호)을 공고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년간 국세(소득세, 법인세)의 100%, 추가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되고, 지방세는 대전광역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초 7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은 대덕특구내 기업들이 크게 기대하여 오던 지원제도로서, 첨단기술기업지정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에 개정됨으로써 본 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정에 이르렀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는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덕특구의 육성목표인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에 효과적인 지원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행정 40년 대성찰 '웹 토론회' 열린다

'대덕넷(hellodd.com)'은 과학기술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웹 토론회'를 개최했다. 5월 3일 오전 8시부터, 총 8시간에 걸쳐 과학행정 대성찰을 주제로 진행된 웹 토론회는 대덕넷을 통해 과학행정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네티즌 의견으로 보도될 계획이다.

대덕넷은 토론회에 앞서 4월 16일부터 특별 취재팀을 구성, 40년 국가 연구개발 행정체계를 조명하는 '업그레이드 사이언스코리아' 기획시리즈를 연재해 왔다. '업그레이드 사이언스코리아'는 과학의 달을 맞아 40년 과학기술 행정을 성찰해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현 주소를 조명해 보는 기사를 집중 기획, 보도하고 있다.

## NEWS

### 여·성·벤·처

#### 여성벤처 수출기업화지원사업 '수출지원단 발대식'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배희숙)는 중소기업청 여성벤처 수출기업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내수 위주의 여성벤처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을 육성코자, 5월 15일 『수출지원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출단계별 집중지원 내용은 1단계 : 전략 수출시장 선정 및 기초교육 실시, 2단계 : 사전 수출가능성 타진(바이어발굴/연계, 전자카다로제작등), 3단계 : 수출업무 대행지원(레터작성, 오더처리, L/C내고, 통·번역 등)이다.

본 사업은 2007년 올해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내수 위주의 여성벤처기업을 수출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하여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의 첫 수출을 준비하는 많은 여성벤처기업인에게 큰 수혜와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본 사업의 수출지원단의 의미는 수출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수출지원 기능의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하여 종합적인 수출 토털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제9회 여성기업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개최 및 참가기업 모집

6월 하순으로 예정된 '제9회 여성기업 투자유치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계획이 공고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의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제 1회를 시작으로 9회째를 맞이하는 본 사업은 우수 여성 중소벤처기업인과 투자자와의 공식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우수 여성벤처기업의 발굴 육성 및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제후기회 제공, 여성벤처기업의 활성화 도모하여 기술개발자금 및 경영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우수 여성벤처기업의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39개 기업이 IR컨설팅 등 지원을 수혜받았고, 총 5개 기업이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여성벤처 투자유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

투자유치 기업지원은 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와 기술보증기금의 2차 기업기술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최종 3개 기업에 대하여 전문 IR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IR 컨설팅 업체의 의뢰하여 최상의 IR자료 작성과 방법 등을 컨설팅 및 교육할 예정이다.